

남아프리카 지명 이슈의 진전: 누가 바다를 조망하는가?

Luice Moller

(남아프리카 국립인문과학 연구소)

이 논문은 남아프리카에서 지명을 붙이는데 따르는 정책과 절차와 관련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주권이 미치는 육상 국경에 따라 해상에서 명칭을 부여되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다. 이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 내에서 지명을 붙이는 전통의 반영이며, 남아프리카의 해양환경에 대한 아주 다양한 명칭법의 설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질과 수리적 특성을 다루는 남아프리카 지명 위원회(South African Geographical Names Council, 이하 SAGNC)의 역할과 기능이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인문과학 위원회(Human Science Research)에 의하여 개발된 지명의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참고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지명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하여 SAGNC에 의해 만들어진 의제(ACT)의 제정과 같은 실제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명을 붙이는 이슈와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조직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즉 1998년의 새로운 SAGNC 의제 118의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는 정부 기관이나 지역의 지명 위원회가 남아프리카 지명 위원회의 약정된 권한과 절차에 부응해서 지명을 붙일 것이다. 측량 및 지도화 단체(The Directorate of Survey and Mapping)는 남아프리카 지명 위원회에 지명을 제출할 것이다. 따라서 SAGNC는 미래에도 여전히 지명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마지막 절차와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